



화순 차의 역사

다지리·다소 등 차 관련 지명 많아... 조선 말기 쇠퇴

화순에는 야생 녹차밭과 지명 등 곳곳에 차 흔적이 남아있다.

화순읍에 자리한 남산과 알매산을 비롯해 능주 만세동, 동복 독상리 등 도처에 야생 녹차밭이 존재하며 화순읍과 남면의 다산(茶山)마을, 화순읍 다지리(茶智里), 북면 다곡리 다소(茶所) 등 차 관련 지명도 많다.

또한 화순은 역사상 이름을 날린 다인(茶人)과도 인연이 깊다. "차나 한잔 마시게 (喫茶去)"라는 화두로 유명한 당나라 선승 조주스님과 동문 수학했던 절감선사는 쌍봉사를 창건했으며, '작설'이란 용어를 처음 쓴 진각국사도 화순출신이다.

고려말 목은 이색은 춘양 개천사 행제선사가 보내준 '영아차'(靈芽茶)를 먹고 나서 "양 거드랑이에 맑은 바람이 인다"(淸風生兩腋)고 시로 표현했다. '동다송'(東茶頌)을 쓴 우리 차의 흥중초 조의선사도 20대 초반에 쌍봉사에 머물며 차심(茶心)을 키웠다.

화순작설차회는 '빙허각 이씨'의 글로 미루어 볼때 200여년 전 까지도 화순에서 차가 널리 재배되고 생활속에 자리했었다. 조선말기와 일제 강점기 등을 거치며 쇠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화순 동면에서는 10여년 전부터 녹차재배를 시작해 현재 22농가가 '청정골 화순녹차' 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하고 50ha 에서 연간 50t을 생산, 고품질의 녹차와 가루 차를 상품화해 단절된 화순차의 명맥을 잇고 있다. (문의 061-371-1551)



“...아이 불러 눈뭉치 가져다가
소반 가득 옥가루 쌓아놓고
손으로 새겨 자옥내니
우뚝 솟은 산봉우리 비슷하구나
용천(龍泉)처럼 구멍을 파고
고인 물 퍼서
작설을 달이네...”

화순출신 고려시대 대선사인 진각국사 해심스님(1178~1234)이 지은 시의 일부이다. 진각국사는 송광사에서 여러 시자(侍者)를 시켜 눈을 퍼다가 소반가득이 쌓아놓고 고인 물로 차를 끓였다. 이 시 가운데 나오는 '작설'(雀舌)은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 '작설'은 참새의 혀바닥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차나무의 어린 잎을 의미한다.

생산자-연구자-다인들 뭉쳐
조선 최고의 명차 '화순 작설차'
명맥 잇고 세상 알리기 나서

주요 회원으로는 화순녹차 재배의 맥을 잇는 조영무(62) 영농조합법인 청정골 화순녹차 회장, '보향' '명산' 등 신제품 녹차나무를 육성한 김정운(55) 전남도 농업기술원 녹차연구소 육종재배실장, 국내 행차(行茶)분야에서 손에 꼽히는 명은당 성화자(65) 초의차 문화원장 등이 있으며 현재 조기정 (목포대 중문과·중국인문학회 회장)교수가 회장직을 맡고 있다.

"200여년 전 조선후기 여류문인인 '빙허각 이씨'(1759~1825)가 팔도 특산물을 소개하는 '동국팔도소산'이라는 글에서 '조선최고의 차는 화순 능주의 작설차'라고 표현한 사실은 능주에 차나무가 어디에 자라는지조차 모르는 우리들에게는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김정운 육종재배실장)

화순작설차회는 매달 한차례(두번째 주 금요일 저녁) 모여 주제 강연을 비롯해 다시(茶詩) 낭송, 행차(行茶) 시연 등 다채롭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정병준 박사의 '의재 허백련 선생의 철학사상과 다도사상'이라는 주제강연을 가졌다. 회원들의 모임은 사랑방 화물밭가 정담(情談)을 연상케 할 정도로

정겨우면서 도 화가에애하다. 옛 시절 호남지방에서 흥했던 선비들의 '풍류(風流)차' 분위기를 오롯이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차를 마시며 나라가 흥해= 타차 모임과 달리 각계의 차 전문가들이 '경계'를 허물고 차문화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참여한 까닭에 단순히 차를 마시고 음미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차 관련 역사연구와 함께 올바른 차문화 보급에도 앞장서고 있다.

"5~7세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다례(茶禮) 교육 자원봉사를 해보니 산만한 아이들도 6개월정도 지나면 눈에 띄게 달라져요. 우리 모임과 화순군, 군 교육청이 나서서 중학교 이상도 차 예절교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정향성 경성속·52·주부)

차 속에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유익한 성분이 많다는 것. 다만 차는 '선택성'이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맞지는 않다는 부연설명이다.

다인들에게 차 한 잔의 의미는 무엇일까? "꽃향기를 흉내만 취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같이 느끼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됩니다. 차를 즐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조영무 영농조합법인 회장)

회원들은 차 정신에 '생명존중'사상이 담겨있어 이러한 차 문화가 널리 퍼지면 사회가 건강해지고 나라가 번창한다는 '음다(飲茶) 흥국론'에 공감한다.

조기정 화순작설차회장은 "올해는 광주를 비롯해 서울·부산·대구 등 4개 지역에서 열리는 차 관련 행사에 적극 참여해 '화순 차'를 세상에 널리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차 모임을 갖고 있는 화순작설차회 회원들. 왼쪽부터 조기정 회장, 조영무, 조기추, 고재순, 최춘옥, 성경숙, 성화자, 김정운씨.

산행안내 12면제

광주일보 광고접수안내 062)227-9600 Fax:062)227-9500

당뇨병 전문 병원 인크리시스. 혈당조절이 안되십니까? 합병증이 우려되십니까? "인크리시스"가 도와드립니다. 특수의료용도등 식품개발(환자용식품) 생명공학박사가 자신있게 만든제품. 상담 전화 010-3598-7080

경·공매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주)옥션코리아 법 무 사 권 속 원 공인중개사 김갑순.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3번지 (법원경매 입찰장 앞) 062)222-8446 H.010-3668-8446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 지도사 스피치, 연설, 리더십, 설득력 향상과정 자격증 취득. 교육목표: 대중 및 상대에게 감동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스피치 교육을 통해 리더 및 지도자로서 품위를 갖게 하는데 있음. 교육기간: 2009년 3월 9일 ~ 6월 28일. 교육과정: 대화 및 연설기법, 발표력 지도 요령, 각종 행사 사회 진행요령 및 연설문 낭독

다주택, 아파트, 토지, 다세대, 다가구(월동)/숙박시설, 오피스텔, 분양, 소문, 용도, 지서 등 부동산 정보. (주)옥션코리아